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41

metroseoul.co.kr
metro®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제4995호 2022년 8월 3일 수요일

[경제종합]
허리띠 졸라매고 국내여행 떠났다 유통업별 '온도차' 04

지표	값	변동
코스피	2439.62	(-12.63)
코스닥	804.34	(-3.27)
금리(국고채 3년)	3.012	(-0.069)
환율(원·달러)	1304.70	(+0.70) 〈2일〉

3高로 기업부담 가중 노조파업 불씨 확산 경영 정상화 '적신호'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이른바 3고(高) 현상으로 국내 기업들이 부담이 확대된 가운데 노조와 갈등으로 경영 정상화에 '적신호'가 켜졌다.

8월 초 여름 휴가를 마무리하고 근로자들이 현장에 복귀하고 있지만 단체교섭 등 노사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존재해 기업 경영 정상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업계는 여름 휴가 이후 본격적인 임단협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단기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동차 업계, 본격 임단협 돌입
현대차 노사, 올 임단협 마무리

르노코리아, 노사갈등 '파업 우려'
노조, 기본급 9만원 인상 등 요구
최근 노노갈등 확산에 혼란 가중

한국지엠, 다음주부터 협상 돌입
노조, 기본급 14만원 인상 요구
8년째 영업적자에 쉽지않을 듯

국내 완성차 업계는 현대차 노사가 여름 휴가전 올해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상)을 마무리 했지만 기아와 르노코리아자동차, 한국지엠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다. 노사간 갈등의 폭을 좁히지 못할경우 파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르노코리아차 노조는 지난달 13~1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전체 조합원 1852명 중 1653명(80.6%)이 찬성표를 던졌다. 중노위가 교섭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벌일 수 있다. 노조는 기본급 9만7472원 인상, 일시금 500만원 지급, 정규직 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쟁점으로 작용하는 임단협 다년 합의는 사측이 임단협 주기를 3년으로 바꾸자고 요구하고 있으며, 노조는 매년 임단협 진행으로 맞서고 있다.

다만 르노코리아차는 최근 노사 갈등이 '노노 갈등'으로 확산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르노코리아차 노조는 대표노조를 비롯해 금속지회, 새미래 노동조합, 영업서비스 노동조합 등 4개 노조로 구성돼 있다. 대표노조는 다른 노조와 함께 연대 투쟁을 벌이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영업 서비스 노조가 대표노조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양측이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르노코리아차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파업과 부분 직장 폐쇄의 아픔을 겪었다. 이로 인한 경영 악화로 2년 연속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19일 열린 8차 임협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한국지엠 노사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2300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성과금(약 1694만원) 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가 8년째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인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가장 큰 문제는 부평 2공장 전기차 생산 관련 투자 여부다. 한국지엠은 올해 말 부평 2공장을 폐쇄할 예정이다. 노조는 공장 재개와 노동자 안정을 위해 전기차 관련 투자 및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측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추가적인 투자는 없다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태다. 한국지엠 노조는 오는 12일 예정돼 있는 4차 쟁대위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타이어 업계와 완성차 부품업계도 임단협을 둘러싸고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민주노총 소속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타이어지회는 다음주 수요일 휴가 복귀 이후 임단협 협상에 돌입한다. 한국타이어는 지난달 폭력사태 등으로 사측과 제1노조간 갈등이 증폭된 만큼 이번 협상이 어느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타이어는 제1노조와 제 2노조간 임단협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노노 갈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대제철은 '노조리스크'에 몸살을 앓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현대차 수준의 특별공로금을 달라며 당진제철소 사장실을 3개월째 불법 점거하고 있고 다른 사업장에서 크고 작은 파업도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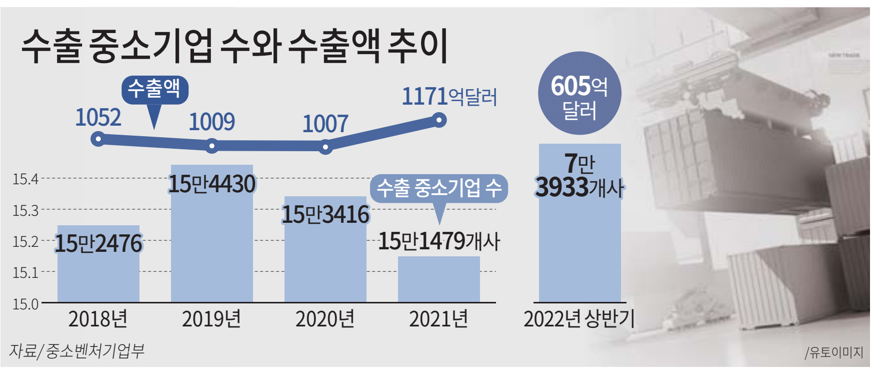
〈4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中企 수출액 늘어나는데 기업수는 줄었다

중기부, 2019년 15만4430곳서 작년 15만1479곳… 2951곳 줄어

"車 내연기관 등 수출품목 구식화 韓 제조기업 글로벌 경쟁력 약화"



최근 3년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수출 중소기업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1171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순항하고 있지만 기업당 수출 규모만 늘었을 뿐 수출 저변 확대는 요원한 모습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는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수출 여건이 더욱 녹록치 않을 전망이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겐 수출 어려움이 더욱 클 전망이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관세청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 숫자는 2018년 15만2476개사 이던 것이 2019년엔 15만4430개사까지 늘었다가 15만3416개사(2020년), 15만1479개사(2021년)로 2년 연속 줄었다.

상반기 기준으로도 7만6108개사(2020년)→7만5386개사(2021년)→7만3933개사(2022년)로 수출 중소기업 숫자가 감소하는 추세다.

물론 중소기업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1100억 달러의 벽을 넘어선 1171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도별 중소기업 수출액은 1032억(2017년)→1052억(2018년)→1009억(2019년)→1007억 달러(2020년) 등으로 매년 10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상반기 기준으로도 중소기업 수출액은 502억→525억→497억→465억→556억→605억 달러로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2020년(465억 달러) 저점 이후 회복세다.

하지만 중소기업 전체 수출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중소기업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대해선 매우 심각하게 봐야한다는 분석이다.

코글로닷컴 이금룡 회장은 "수출 중소기업 숫자가 감소하는 것은 수출을 주로하던 한국 제조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수출 품목들이 예전 것이 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자동차의 경우 내연기관 부품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중국의 자국 강화 정책도 한국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7월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6.3% 오르며 IMF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1월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고르고 있다. /뉴시스

소비자물가 6.3% ↑… 24년만에 '최고치'

통계청 '7월 소비자물가 동향'
농축수산물 가격·외식 물가 급등
추석 앞두고 있어 오름세 지속될 듯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6%대를 넘어섰다. 지난 달에는 전년대비 6.3% 상승하며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가 하락에 기름값 오름세는 주춤했지만, 농축수산물과 외식비, 공공요금까지 치솟으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물가 오름세의 지속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연간 물가 상승률은 5%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2020=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3% 올랐다. 상승 폭만 보면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최고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6.0%로 처음 6%대를 찍은데 이어 7월에 더 높아졌다.이는 배추에 오이,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 가격과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가 크게 오른 영향이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9.0% 뛰었는데 농축수산물이 7.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며 농산물 물가는 8.5% 상승했다. 배추는 무려 72.7% 올랐고, 오이(73.0%), 시금치(70.6%), 상추(63.1%), 파(48.5%) 등도 죄다 올랐다. 축산물 가격도 수입 소고기(24.7%), 돼지고기(9.9%) 등이 오르며 전년대비 6.5% 상승했다.

식재료값이 오른데다 여름 휴가철로 수요가 몰리면서 외식 물가도 전년보다 8.4% 뛰었다. 생선회(10.7%), 치킨(11.4%) 등이 많이 올랐는데 상승 폭으로는 1992년 10월(8.8%) 이후 29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2면에 계속〉

/세종=원승일 기자 won@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권성동-중진 회동…"상임전국위·전국위 이르면 5일 소집" /사진 뉴시스
▲홍준표 "당 지도부 동력 상실…총사퇴하고 비대위 꾸려야"
▲박지원 "'음주 정책' 박순애·'평지풍파' 이상민, 둘은 경질해야"
▲與, 비대위 뜻 모았지만…이준석 복귀 전제 여부 '미지수'

▲감사원 "서울국세청, 주식 과소평가로 상속세 226억원 덜걷어"
▲조응천 "어대명? 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 1, 2위 표차 박빙" /사진 뉴시스